

일 주 문

화엄사 내팔만다라 특별전
구례 화엄사 주지 종삼 스님은 11월 24일까지 화엄사에서 내팔만다라 특별전을 개최한다.

고운사 청년승학 학생백일장 대회
영천 고운사 주지 호성 스님은 10월 31일 고운사에서 제3회 청년승학 학생백일장을 개최한다.

승광사 금강산림 대법회
순천 승광사 유나 현목 스님은 11월 1일 승광사 금강산림 대법회에서 법문한다.

동일정책회의서 강연
법체 스님(민족통일불교중앙협의회 의장)은 10월 15일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통일부 통일정책회의에서 통일비용 마련을 위한 주제로 강연했다

천태지문화학회
천태지문화보존연구회 회장 세운 스님은 10월 30일 원주 성문사에서 제8회 천태지문화대회를 개최한다.

천룡정사 천룡공양법회
팔공산 천룡정사 주지 지덕 스님은 11월 7일 천룡 공양법회 및 다보탑 불사 회향 법회를 봉행한다. (054)336-0052

병불련 해외의료봉사
병원불자연합회 류재환 회장은 10월 30일 ~ 11월 6일 남인도 카르나타카에서 티베트인 1만 5000명을 대상으로 해외의료봉사를 실시한다.

진각종 사무원장증광정사
진각종 증광 정사는 10월 14일 진각종 제370회 정기총회에서 제34대 사무원장으로 선출됐다. 현재 13대 총의회 의원 회당학원 이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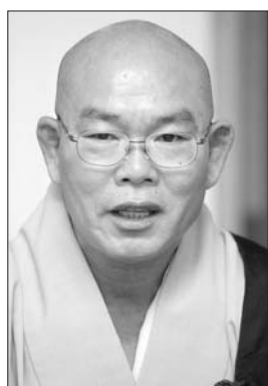
제1호 명예국제포교사에
미국인 브라이언 베리
조계종 포교원(원장 혜총)은 10월 19일 제6차 포교원 회의에서 브라이언 베리(66, Brian A. Bany, 제작사찰 비로자나 국제선원)를 1호 명예국제포교사로 선정했다.

브라이언 베리는 40여 년간 불화 제작과 경전, 법문 번역을 바탕으로 한국인과 한국문화를 전세계에 알렸다. 브라이언은 자신의 홈페이지를 한국 문화관광부, 한국해외홍보관, 태국 방콕 마찰라퐁콘라자비다리아 대학교, 템플스테이 홈페이지에 링크해 한국불교를 널리 알리고 있다. 이상언 기자

“울장·울사 위상 높아졌다”

철우·도일 스님 등 고령 반룡사서 계율 근본도량 천명

한국 불교 최초로 계율 근본도량이 선포된다. 조계종 울장연구회장 철우 스님, 고령 반룡사 주지 도일 스님 등은 10월 20일 인사동 모습식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11월 3일 오전 11시 고령 반룡사에서 울장연구원 개원식 및 계율 근본도량 천명 법회를 봉행한다”고 밝혔다.



철우 스님



도일 스님

도일 스님은 “그동안 울원이 총림 중에 섞여 있어 불편이 많았다. 본격적인 울장 연구과 울사 스님들이 뜻을 펼칠 도량을 만들고자 계율 근본도량을 선포하게 됐다”고 말했다.

울장연구회장 철우 스님은 “울원 2년, 연구원 3년 과정을 마친 울사 스님들이 마땅히 갈 곳이 없다. 5년 후면 자리를 비워줘야 하다 보니 울장 연구·발전이 어려움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스님은 “대부분 사찰이 고기만 빼고 오신채를 먹고 있어 울사 스님들이 대중생활을 하기가 힘들었다”면서 “스님 가운데에는 계도 잘 모르면서 수계·포살하는 경우가 적지 않지만 울사들이 존중 받지 못하는 풍토는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철우 스님은 “울장연구회에서 현토를 달고 번역을 붙인 <사본울장>, <승갈마> 등을 보급해 계율학 연구 풍토를 진작시키는 한편, 한글·한문 계율 문구를 대중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캐릭터와 함께 플랭카드도 만들어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영축총림 울원장 덕문 스님은 “계율 근본도량 반룡사는 울사 스님들이 모여 삼학을 고루 닦아 모범법단을 내는 도량이 될 것이다. 특히 계율을 지키고 사는 것이 불편하다는 통념을 깨는데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울장연구원 개원식 및 계율 근본도량 선포식에는 조계종 단일계단 단주 고산 스님과 단일계단위원회 스님, 통도사 승광사 동화사 청암사 봉녕사 운문사 통학사 등 전국 울원의 울사 스님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특히 스님은 “울사만 계율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법을 지켜야지 판·검사만 법을 지키면 나라가 제대로 되겠느냐”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스님들은 계율 근본도량 반룡사를 중심으로 현대화된

두어 학생들의 신행활동을 도울 계획이다. 또, 몇 개 화교를 특성화시켜 육성하는 한편, 부산정보산업고의 축구부와 영남중학교의 태권도부 등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영담 스님은 “최근 동화사가 학교법인을 인수해 동국대학원을 새롭게 문 열기도 했다”며 “불교계 운영 학교가 적은 것이 불자 교양화의 원인이기도 한 지금, 교육불사는 불교를 젊게 하는 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영담 스님의 영남학원 제3대 이사장 취임식은 11월 6일 부산정보고 체육관에서 열린다. 이날 부대행사로 마련된 음악회에는 불자가수 은지원 등이 출연할 예정이다.

조종섭 기자

■ 영남학원 신임 이사장 영 담 스님

“교육불사가 불교를 젊게 합니다”



“영남학원 설립자故 이우룡 박사의 뜻을 이어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인재양성에 매진하겠습니다”

1950년 6월 부산에서 영남상업고를 개교하면서 시작해 한국전쟁 중에도 인재양성에 힘써왔다. 2001년 부산정보고로 명칭을 바꾼 후 개교 60주년을 올해까지 6만 여 동문을 배출했다.故 이우룡 박사는 대한한의사협회를 창립한 인물이다.

영담 스님은 “창립자 이우룡 박사의 부인인 이무등님 보살은 1950~1960년대 동산·경봉·고산 스님 등 큰 스님들 가까이서 신행생활을 했다. 이 보살의 인연이 이어져 3대 이사장을 맡게 됐다”고 설명했다.

영담 스님은 영남학원을 명문사학으로 만들기 위해 참선과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등을 시행하고, 새로 교법사를

두어 학생들의 신행활동을 도울 계획이다. 또, 몇 개 화교를 특성화시켜 육성하는 한편, 부산정보산업고의 축구부와 영남중학교의 태권도부 등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영담 스님은 “최근 동화사가 학교법인을 인수해 동국대학원을 새롭게 문 열기도 했다”며 “불교계 운영 학교가 적은 것이 불자 교양화의 원인이기도 한 지금, 교육불사는 불교를 젊게 하는 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영담 스님의 영남학원 제3대 이사장 취임식은 11월 6일 부산정보고 체육관에서 열린다. 이날 부대행사로 마련된 음악회에는 불자가수 은지원 등이 출연할 예정이다.

조종섭 기자

“STOP! 웹서핑... 답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까규파 최고 수행지도자 까루 린포체 동국대서 법문



티베트 불교 4대 종파 중 하나인 까규파의 최고 수행지도자 까루 린포체가 9월 30일~10월 20일까지 방한해 많은 이들에게 티베트의 법문과 수행법을 전했다.

야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마음을 다스리면 윤회계에서 벗어날 수 있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것이 곧 윤회계다. 욕망(貪), 미움(瞋), 무지(痴), 아만(慢), 질투(嫉)의 오독에 시달리고 있다. 오독심을 다스리면 윤회계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다스리지 못하면 윤회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오독심을 다스리고자 한다면 수행을 해야 한다.

윤회계, 무상, 생로병사를 알게 되면 저절로 수행을 하게 되고 그 무엇도 정진력을 막을 수 없다. 기도를 하다 조는 것은 윤회계, 생로병사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관습적으로 기도를 하기 때문이다. 윤회계를 알고 수행을 하면 대보살이 될 수 있다.

#웹사이트나 책을 보지 마라

나도 때가 되면 배가 고프진다. 나 또한 아상이 있고 여러 가지 마음이 있다. 나를 대단히 높은 성취를 한 보살이라고 보지 않기를 바란다. 여러분과 내가 다른 것은 전생의 업이 다른 것뿐이다. 내가 좋은 업을 타고났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좋은 수행자가 되고자 노력한다. 불법 수행은 자기하나만의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을 위한 것이다. 좋은 수행자는 좋은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는 사람이고, 이렇게 노력을 할 때 삶과 사회를 이해하며 불법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불교, 관건은 '수행'

수행을 하지 않는다면 법문을 들을 필요가 없다. 부처님은 자비로운 분이요, 여러분들에게 불법을 전해줬지만 부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근본스승을 찾는 것은 수행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일이다.

불상이 가르침을 주지 않는다. 법문이 좋아 법문을 듣는 것, 책만 읽는 것도 수행이 아니다. 근본스승을 찾는 것은 수행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일이다. 삼장이 제시하는 선지식을 만나 수행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마음으로 수행을 한다면 모든 것이 원만하게 이뤄진다. 전승, 전통에 관계없이 부처님 법에 따라 여법하게 수행을 하기를 바란다. '이것과 저것이 다르다' '이 전통과 저 전통이 다르다' '이것은 무엇이고 저것은 무엇인가' 라고 한다면 혼란스러워지고, 의구심으로 귀한 시간을 낭비하게 돼 수행을 하지 못한다.

#윤회계 알아 수행하라, 윤회계는

여러분 자신이다. 윤회계는 무엇인가? 여러분 자신이 다. 세상은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만들어 주지 않는다. 모든 것은 마음으로 지어 만든다. 즉, 자신을 깨달아

이상언 기자

#까루 린포체(Kalu Rinpoche)는 누구?

티베트 불교 4대 종파의 하나인 까규파의 최고 수행지도자 까루린포체는 티베트 불교의 가르침과 수행법을 처음으로 서구에 전한 티베트 불교의 스승 까루린포체(1905~1989)의 환생자로 여겨지는 2대 까루린포체다. 1대 까루린포체는 자신의 환생을 예언하며 1989년 입적했고, 그 예언대로 1990년 인도 다르질링에서 까루린포체의 환생자로 여겨지는 아기가 태어났다. 현 까루린포체는 1992년 달라이라마로부터 까루린포체의 환생자로 공식 인정받아 1993년 2월 삼들 달게링 사원에서 제2대 까루린포체의 자리에 올랐다. 까루린포체는 까규파의 전통에 따라 수행을 지속하고 있으며 지난 2005년 봄부터는 3년 3개월간 무문 수행을 시작해 무사히 회향했다.

제1회 불교문화 학술토론회
백제불교문화학의 새로운 과제

초청의 말씀

이번 세계백제문화대전에 즈음해서 대한불교조계종 제6교구본사 마곡사와 대전거사리연합회, 중앙인문연구원 등이 주최하고 중앙불교연합대학원이 주관하여, 백제불교문화에 대한 학술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잘 알려진 대로 국보급 백제불교문화재들은 그동안 학계에서 많이 논의되고, 평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므로 재고할 필요가 절실합니다.

이에 저희 주최·주관 측에서는 적어도 다음의 네 가지 주제에 대하여 종래와 다른 각도에서 새로운 견해를 논의·제시하고, 사계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이에 관심있는 인사들을 초청하여 공개 토론을 벌임으로써, 그 위대한 불교문화재들의 실상과 진가를 올바르게 구명·선양하려는 것입니다.

이래와 같은 학술토론회에 찬연한 불교문화를 지키고 연구하시는 높은 뜻으로 부디 동참하여 주시기를 두 손 모아 앙청합니다.

제6교구본사 마곡사 주지 원혜, 대전거사리연합회 회장 류해상, 중앙불교연합대학원장 사제동, 중앙불교연합대학원 원외회장 김길동

■ 일시 _ 2010년 10월 30일(토) 오후 1시~6시까지

■ 장소 _ 충남대학교 백미교양교육관(W10) 세미나실(312호)

학술토론(2:00~6:00) 사회 : 김진영 교수(충남대학교)

- 기조발제 : 백제불교문화학의 새로운 과제 : 사제동 교수(원정)
제 1토론 : 연기 비암사의 창건과 석불비상 : 유기준 교수(공주대학교)
제 2토론 : 익산 미륵사의 창건 연대 '己亥年'의 문제 : 강종원 박사(충남역사문화연구원)
제 3토론 : 무령왕릉 문물의 불교적 성격 : 정재윤 교수(공주대학교)
제 4토론 : 백제금동대향로의 불교미술적 실상 : 김창근 교수(동국대학교)

주최 제6교구본사 마곡사 / 대전거사리연합회 중앙인문연구원, 중앙불교연합대학원 원우회
주관 중앙불교연합대학원 원우회
협찬 한국불교문화학회 / 어문연구학회 / 충남역사문화연구원 / 충청문화연구소
후원 대전광역시 / 대전비니니청림회 / 대한생활불교회 / 불교신문사 / 불교tv / KBS대전총국 / MBC대전문화방송 / TJB대전방송 / 대전일보사 / 중도일보사 / 충청투데이

문의 : 대전불교거사리연합회 042)222-3788, 011-420-1120

교육과학기술부허가 공익법인 한국평생교육기구
보건식품처방사
Health Food Prescription Counselor
보건식품처방사란?
국가에서 인정한 식품 원재료를 활용하여 보건식품을 개발하고 개인의 체질에 따라 식품을 맞춤 처방하는 전문가로서 보건식품 처방원을 개원할 수 있음
보건복지가족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자격검정)
교육과목 교육기간
· 인체생리학(인체해부학) · 자연치유의학 · 식품영양보충학 · 식의학(동양의학, 양생학, 변종) · 중탕이론 및 실습(법제론) · 보건식품처방론(변증학, 방제학) · 약용식물학, 총 7개 과목
*특강 : 자연건강법(자세교정, 기공, 양자파동), 식품위생 법규, 약초기행실습, 보건식품효소발효액
14주 과정 토요일 반
교육생 상시 모집
중앙교육원 - 홈페이지 www.klle.or.kr
접수처 :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 수납처 : 한국보건교육원 (신한은행 100-025-095930)
문의 : Tel. 02)3147-2020
지부교육원
영남교육원 055-543-3155 울산교육원 052-260-1037 지리산연수원 063-635-5112
대구교육원 053-566-1116 호남교육원 063-288-5623 경남서부교육원 055-932-5877
부산교육원 051-441-0111 전북익산교육원 063-854-1060 제주교육원 064-755-7588
해운대교육원 051-757-9990 광주교육원 062-672-5432
교육과학기술부허가공익법인/한국평생교육기구
한국보건교육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